

부처님 오신 날 특집

각 종단 봉축 법어

“한 생명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으니”

부처님은 일체중생의 머슴

모든 생명을 찬탄합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무량겁을 두고 찬탄할지라도 다 찬탄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각박한 현실이라도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여 내가 이기기 보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남을 기쁘게 합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그 고통을 받습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내 고통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 일체중생의 교주가 아니라 일체중생의 머슴입니다. 오늘은 말이 끊기고 생각이 다하는 날입니다.

물따라 산이 가고 산을 따라 물 흐릅니다. 억!

조계종



월하 종정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여 내가 이기기 보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남을 기쁘게 합니다.”

참마음에 진정한 행복 있어

불타의 광명은 진리의 빛입니다. 너와 나의 차별도 없고 편견도 없으며 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영원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욕망은 강하고 절제는 부족하며 이기의 목소리는 높고 공존의 논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즉 가치가 상실되고 참다운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우주와 내가 한몸이라는 광범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에 있습니다.

태고종



보성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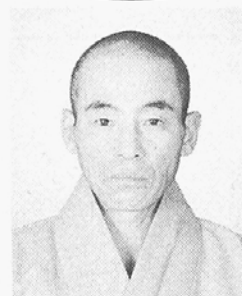
요청되는 때는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타의 참마음을 다시한번 되새겨 사랑과 자비와 공존의 평화가 깃든 극락정토를 건설해 나갑시다.

화합으로 연화정토 건설을

부처님은 무명 중생계를 밝게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이 시대는 과학과 기능문명의 진보로 인간의 물질적 생활의 편의는 많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간성의 상실과 인간소외 그리고 육체본위적인 퇴폐사조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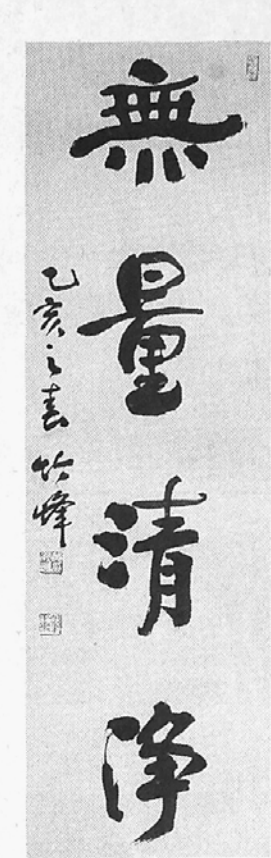
이러한 오늘의 인간정신계의 혼탁과 위기를 구제하는 길은 인간의 존엄성과 대자비·대평등을 밝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즉 불성을 자각하고 비인간적으로 전락된 중생을 인간본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천태종



도용 종정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남방이 화합하고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길 부처님께 축원드립니다.



무량정정은 우주가 맑고 깨끗해 끝이 없으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청정한 마음 갖기를 발원해 보자.

황성현 (호:竹峰) 한국서예작가협회이사, 대한민국의예대전 심사위원, 개인전 8회 개최, 서예비디오 교재 제작.

남에게 회향하는 노력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청정한 법신에서 사바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부셨던 분이니 부처님 오심은 삼계의 광명이니, 법계의 무한한 은혜이며 인류의 더없는 영광입니다.

중생의 본원성은 화해의 타전이며, 법계의 본연상은 화합의 만다라 중이니 이곳의 모든 유정은 은혜의 복전이라. 무릇 육대를 체로 하고 연기된 삼라만상은 상호 맺어져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돕고 의지해야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화의 불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법계의 본래면목을 깨달아 은혜를 잊지 말고 수인은 일사라도 두지 마십시오. 은혜는 분유적인 것이요,

수인은 아상에 의해 전도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我)라 함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익과 안락만을 생각함이니 아상으로 인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을 탓하게 되니 먼저 남의 탓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참회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업적을 남에게 돌리려 노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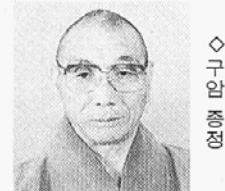
실천하지 못할 것을 말하지 말고 말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수인이 있는 곳에 바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직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화합과 행복의 만다라 세계가 장엄할 것이요, 뜻을 넘치는 기쁨의 불국정토는 건설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 오심을 진정으로 봉축하는 것입니다.

진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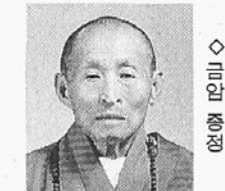
각해 종인

대한법화종



구암 종정

법륜종



법륜종 종정

팔만 세계 비추는 한줄기 광명

大地山河如果日 (대지산하어고일) 은누리 여조광생의 가슴마다 충만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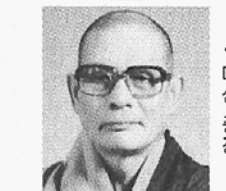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어두운 무명을 깨뜨리고 온 법계를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비추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생노병사의 고통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을 영리한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십시오.

관음종



대천 종정

삼론종



대산 종정

고해중생 제도코자 나투서

천백여화신으로 몸을 나투셨 습니다. 세존께서는 일찍이 선교양론을 열으셨고 백천방편으로 수많은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시고, 도를 깨달지 못하는 중생들에게는 그 경도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어두운 밤에는 지혜의 등을 밝혀 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평등을 하게 배풀게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지혜

를 얻도록 대법륜을 항상 시현하심이 어인 3천년이라. 바다와 같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 거룩하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넓고 높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항상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가득 넘치는 불국토를 이루도록 불제자 모두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부터 부처

도 다 본래부터 부처여서 부처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은 본래에 입각한 평등관인 것인데 그러면 부처야 할 우리가 어리석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생사번뇌의 지옥고통을 겪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현상만을 보고 현상에 휘둘려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광등관을 망각한 차별관민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면에 나타난 파도같은 생활이 아니라 바

다전체와 같은 생활일 때, 겉으로 움직이되 속으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있듯이 현상의 갖가지 차별위에 살면서도 나는 본래부터 부처라는 평등관을 무척히 지닌 사람은 현상에 걸려서 중애(情愛)의 감정에 휘둘리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성을 지키어 밝고 바르고 착한 보살의 생활 목표의(無佈度) 무고뇌(無苦惱) 대안락(大安樂) 대인락(大安樂)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알기쉬운 불교 이야기. 불교 교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쉽게 해설하여 올바른 신행의 길잡이가 되도록 제작한 교양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101.9MHz, 부산 89.9MHz, 광주 89.7MHz.

우리들의 부처님. 부처님 일대기, 만화영화로 본다!! 어린이 포교용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영화 '우리들의 부처님'은 상·하 2부작으로 각 35분씩 모두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위대한 탄생(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제2편 '괴로움의 그림자(사문 출유)', 제3편 '길을 찾아서(고행)', 제4편 '새벽하늘의 별빛(성도)', 제5편 '자비의 발걸음(초전법륜)', 제6편 '널리 퍼지는 가르침(열반)'. 서울 101.9MHz, 부산 89.9MHz, 광주 89.7MHz.